세웅스님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선승
갑장사 주지 소임 유일한 이력

세웅 스님은 이력이나 수행생활이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선승이다. 1925년 태어난 스님은 1956년 서운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은사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스님의 유일한 이력은 1968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지낸 갑장사 주지 소임이다. 이것도 스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갑장사에 스님이라곤 세웅스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무행정상 주지 소임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주지 자리를 상좌에게 맡겼음에도 조실이나 회주 등의 자리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조실로 앉게 되는 순간 모든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주사암연합회 고문자리까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스님은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지난 40여 년 동안 갑장사를 떠난 적인 한번도 없다고 한다. 스님은 오후불식을 하며 현재 대웅전에서 100m 떨어진 산자락에 조그마한 토굴을 마련해 정진하고 있다.



◇세웅스님은 예불과 참선 · 기도시간 이외엔 항상 작업복 차림이다. 사시 마지를 위해 법당으로 걸어가고 있는 스님.

77세 믿기 어려운
쩌렁쩌렁한 염불소리

고 하니 스님은 "기도를 또 해야 한다"며 명부전으로 향하셨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스님은 해질 녘까지도 명부전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한 보살이 다가와 "기자님들께서 오신 걸 알고 일부러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점심공양도 거르시고 약 5시간 이상을 독경 삼매에 드셨다. 그것도 80에 가까운 노스님이 말이다. 신도들은 "스님은 웬만한 젊은이들을 능가할 정도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계시다. 한마디로 초인적이라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오랜 세월 지속하신 수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갑장사에서 만난 박인석 씨(상주법우회 부회장)는 "세웅 스님은 참선과 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법상에 올라 법문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신도들이 스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하면 늘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법문을 하겠는가. 나는 법문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갑장사에는 여느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문 법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문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갑장사에 가면 많은 법문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스님의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든 것이 신도들에겐 산 법문이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성의 작용임을 신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다. 갑장산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면서 밝은 선지(禪旨)와 산 법문으로써 불자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고 있다. 즉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의 구현이며, 청정율의(淸淨律儀) 그 자체인 것이다.

스님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선(禪)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아예 말문을 열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도들이 터득한 '법문듣기 비법(?)'이 있다. 생활에서의 고민을 묻는 것이다. 그러면 스님은 그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방편을 토대로 자상한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갑장사의 법회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늘 열리고 따뜻한 문답이 오간다.

스님은 '무욕(無慾)의 삶'을 자주 강조하신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욕심은 마(魔)가 된다는 것이다. 가정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특히 깨닫고야 말겠다는 지나친 수행 욕심과 많이 알려고 하는 지적 욕심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화 하나. 얼마 전 상주시내에 거주하는 한 신도가 개업 불공을 하며 20만원을 갑장사에 보시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들은 스님은 그 신도에게 돈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보시를 많이 한다고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장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스님은 재물이 많아지면 게을러지고 욕심도 많아져 수행에 마가 된다고 경계하시며 보시에 대해서조차 엄격하다. 결국 보시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깃든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어떤 때는 스님이 신도들에게 보시금을 주기도 한다. 사찰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다.

공양주 보살과 거사 그리고 스님만이 살고 있는 갑장사에 얼마 전 컴퓨터 한대가 들어왔다. 갑장사를 찾는 불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변화다. 약 8천 여장의 신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이 문제.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잘 아는 신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스님은 그 신도가 밤새워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루는 고생한다며 정성껏 마련한 보시금을 내밀어 그 신도를 어쩔 줄 모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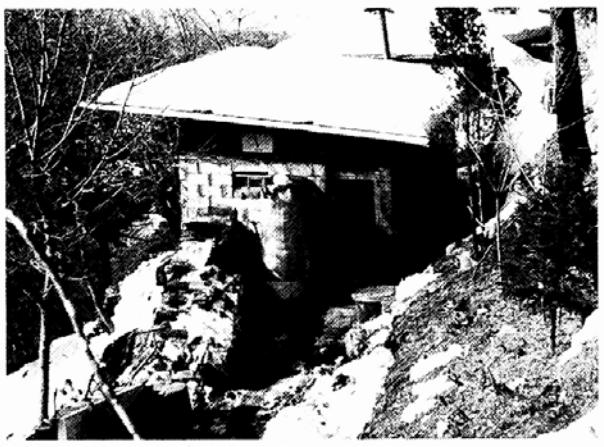
갑장사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스님의 수행력 때문이다. 물론 신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수행의 길을 묻는 스님들과 나름대로의 투철한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재가 불자들도 많이 방문한다.

80년대 초 등산을 왔다가 스님을 알게돼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행지도를 받고 있다는 김종재(상주공고 교사) 씨도 그 중 한 사람. 그는 "스님을 뵙게 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며 "무엇보다 수행의 길을 쉽고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다"고 말한다. 김 씨가 스님을 만나기 전 화두로 삼아 온 것은 '나는 누구인가'다. 하지만 수없이 참구해 봐도 도무지 진척이 없었다. 의문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스님의 '컴퍼스 강의' 덕택이다. 답답해하는 김 씨에게 스님은 하얀 종이 위에 컴퍼스로 둥근 원을 그려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는 중심 축은 보려 하지 않고 모두 둥근 원에만 집착한다. 무상(無常)한 참된 나는 보려하지 않고 끝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허상을 자기의 본래 보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허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신을 찾는 지름길이다."

스님은 수행의 길을 묻는 수행자들에게 화두를 권하거나 좌선작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바르게 사유하는 것(正思惟)을 먼저 가르친다. 이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제1의 수칙이며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사유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화두를 참구하라는 것은 의심도 안 되는데 억지로 참구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스님은 불자들에게 '죽음은 곧 삶의 결산이다'며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보이지 않은 싸움을 하는 수행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도 "상주 지역의 스님과 신도들은 세웅 스님을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웅 스님을 가까이서 뵌 불자들은 한결같이 "갑장사는 경제적으로는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사찰이다"며 "그것은 세웅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옛말에 산무도인 조무양신(山無道人 朝無良臣)이란 말이 있다. 산중에 도인이 없으면 배회하는 수행자가 많아지고, 조정에 신하가 없으면 백성은 시달림을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불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꾸준히 잇고 있고, 21세기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웅 스님과 같이 두문불출하며 수행을 끊임없이 탁마하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세웅스님은 갑장사 대웅전 왼쪽 작은 언덕 넘어에 작은 토굴을 만들어 40여년동안 절밖을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수행하고 계신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 초일스님

20년간 오로지 참선수행만
'출가' 의미 일깨워주는 스님

'출가'.

단순히 정들었던 집과 가족을 버린 것으로, 또 삭발염의한 것으로 대 만족을 삼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없다.

출가란, 고정화된 관념과 익혀온 많은 습들을 뚫고 자신을 자신답게 드러내 놓으면서 대자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삭발을 할 때마다 진정한 출가의 의미, 집을 떠나온 이유를 생각하며 삭발한 머리를 만져보고 또 신심을 다져 올곧은 수행자의 자세로 정진하라고 일깨워주는 스님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자기 자신을 자신답게 드러내 놓는 일은 쉬운 듯 하면서 참으로 어렵다. 많은 허구의 집에서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빈번함은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 자유의 길이 누구앞에나 놓여있지만 수행의 길목에서 많이도 번민함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굴레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 자기자신을 걸치레의 도구에 합류시키지 않고 답답히 자유의 길을 만들어 가면서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님이 있다. 나는 그 스님을 '바람'스님이라고 부른다.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떠나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훨 하니 떠나는 스님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전 재산이라고는 걸망 하나가 전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만들어 가지 않는다. 때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자신에게 철저하다. 그러나 남에게는 관대하고 망상의 집을 결코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함은 많이 만들어 놓은 반연 때문이었다고 그 반연들에게 진 빚을 어느 정도 갚고나면 진정한 출가의 길을 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는 초일스님. 스님은 출가하는 그 날까지 결코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으며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출가를 해 20년간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참선수행만 고집하며 변함없이 살아오고 있다.

늦은 출가였지만 그 늦음을 늦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른'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형식적인 무소유가 아닌, 참 무소유를 빚어내고 있는 숨은 수행자이다. 비쩍 마른 몸매에 피부엔 윤기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스님의 눈빛은 그 어떤 것도 녹일 수 있을 만큼 형형하니 살아 있다.

스님이 기거하는 토굴은 말 그대로 '토굴'이다. 요즘 일부 스님들이 대중을 떠나 나름대로 수행을 하겠다고 토굴을 만들어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추어 놓고 "나는 토굴에서 정진하는 수좌" 라고 말하는, 기름기 흐르는 그런 토굴이 아니다.

방은 딱 한 칸이다. 따로 부엌도 없다. 왜냐하면 초일 스님은 대부분을 생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생식을 못 하는 이들이 찾아가면 정말 간단히 먹을 거리를 해결해 준다. 방 구석에 놓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끓인 된장국에 김과 간장이면 밥 한 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해준다. 빈 그릇들은 흐르는 냇가에 가져가서 씻으면 그만이고…

살던 토굴을 떠날 때도 간단하다. 소지품 전부를 걸망 하나에 차곡차곡 넣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고 간다. 물건이 많으면 떠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고,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집착이 가서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마는 물욕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며, 물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스님은 출가는 대중처소에서 했지만 이후는 대중처소에서 살아 본 적이 없는 '완전 토굴형' 스님이다. 강원이나 선원에 얼굴을 내민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행사에 동참하는 스님도 아니라 몇몇 도반 외에는 스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아는 도반이 도움을 좀 주고자 하면 어디론지 숨어버려 몇 해나 지나야 얼굴을 겨우 내민다.



누군가 이쩌다 보시금을 좀 넉넉하게라도 주게되면 초일 스님은 안절 부절이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할 지 두려워하며 마침내 누군가에게 다 주어버리고는 그제서야 마음 편해한다. 그런 스님의 모습에 답답하다고 말하니, 답답하기 때문에 정진을 하지 답답하지 않고 이(利)에 밝으면 화두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늘 자유로운 초일스님. 최소한의 시은으로 더 큰 자유로움을 만들어 가는 그 당당함이 이 시대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우린 그 귀감조차 흘려 보내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다.

대중과 더불어 하지 않고 홀로이기를 고집하는 스님, 어쩌면 '괴각' 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진정한 괴각' 스님이 많을수록 우리 승단의 구도심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 세원사 주지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2545년 봉축 현수막

13도 칼라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연수막도 제작 가능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마음청정 나라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완영

2545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같이 5월 1일 사월초파일 도선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가능

연등축제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불법제작 판매 불허

봉축깨릭터기 색상(분홍색,황색,흰색) ▲차량용 깃발
▲불자의 집 교패
▲봉축(차량용) 스티커 색상:군청,흰색,분홍,주황 (50매 1세트)
불교기 (20cm×30cm) ▲차량용 깃발
◀불자의 집 교패
▲차량용 옴마니반메훔
※ 불교기, 법륜기, 태극기, 관자기 크기별로 있습니다.
▲봉축 캐릭터 풍선 (풍선대롱 포함)
▲방생 타이슬링 색상(녹색, 청색)
▲봉축 타이슬링 색상(주황, 분홍, 흰색, 청색)
▲봉축 버튼 색상(군청, 분홍, 주황, 백색)
▲봉축 캐릭터 티셔츠 (그림 종류 다양)
▲앞치마 색상(노랑, 빨강, 녹색, 청색)
▲차량용 연꽃염주
▲봉축 캐릭터 등 색상(적색,분홍,녹색,노랑,청색)
▲성인모자
▲아동모자 색상(빨강,노랑,청색)
▲봉축 리본 (색상다양) 일반 고급 3단귀빈용
▲부채 (앞면) (뒷면)
▲봉축 어깨띠 색상(흰색,노랑,오렌지,분홍,연두)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앞) 마음청정 나라청정 (뒤) 부처님오신날
▲지아철(장엄)연수막 (105cm×200cm) 마음청정 나라청정 / 낫마다 좋은날 되소서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7가지) 법체내시종사승 / 날마다 좋은날
◀봉축 팬시스티카 (12종 1세트)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 · 4307 · 4309 FAX.(02)738-8682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 종합불교관(051)816-2926 ■대구-삼영불교서적(053)425-4097 ■광주-무등원(062)232-0904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 용해불교(042)283-3727 · 중앙불교(042)222-7840 ■경북상주-고려문헌사(054)541-5599 ■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455-1068 ■충주-중원불교마당(043)851-8477 ■공주-시대불교사(041)856-3280 ■경기광주-광주만물(031)762-1083 ■의정부-삼보불교사(031)856-1020 ■경남밀양-밀양불교사(055)355-5742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